

“눈보라 슈제트”에 구현된 삶-죽음의 순환구조: M. 불가코프 단편 「눈보라(Вьюга)」를 중심으로

강 수 경
(부산대학교)

I. 들어가며

단편 「눈보라(Вьюга)」는 불가코프의 초기작인 『젊은 의사의 수기(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¹⁾에 실린 7편의 소설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불가코프는 스몰렌스크의 니콜스코예와 바집에서 시골의사로 근무하던 1916-1917년 사이 『수기』 집필을 시작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였던 불가코프가 니콜스코예 병원에 부임하여 일하던 첫 해 진료한 환자들은 하루 50명 정도로 추산된다. 시골병원에서 무지하고 순박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사투를 벌이는 젊은 의사의 생생한 삶은 불가코프의 자전적 작품인

1) 연작소설인 『젊은 의사의 수기』는 「수탉이 수놓인 수건」, 「태아 회전술」, 「강철로 된 목」, 「눈보라」, 「에굽의 흑암」, 「사라진 눈」, 「별 같은 발진」과 같은 7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925년-1926년 사이 각각 독립된 단편들로 모스크바의 잡지 “의학 노동자”와 레닌그라드 잡지인 “붉은 파노라마”에서 출판되었다. 7편이 한데 묶여서 『젊은 의사의 수기』라는 한권의 책으로 출판된 것은 불가코프 사후 1963년 잡지 “아가복”(№23)에 의해서이다. Б.В. Соколов "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 *Энциклопедия булгаковская*. М. (1998) с. 206. 이후 『젊은 의사의 수기』를 줄여 『수기』로 칭하기로 한다.

『수기』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수기』는 주인공 화자의 의료경험이 잔잔한 고백체로 구성되어있는 연작소설이다. 여기에 포함된 7편의 소설들은 내용이 ‘병원 이야기’라는 동일한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단편들이 ‘밤, 어두움, 눈(눈)’으로 대표되는 ‘꿈’의 시공간²⁾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또한 작품 면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일인칭 화자의 목소리는 『수기』의 통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불가코프 특유의 언어유희와 이야기꾼적인 화자 서술을 통해 일견 시골병원의 슬픈 이야기들을 웃음으로 채색한다.³⁾

『수기』에 실린 소설들은 단편 소설의 특징을 따라 각각 일정한 스토리와 주제를 가진다. 그리고 각 단편의 제목들은 바로 이 소설 속 사건을 환기시키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 1편인 「수탐이 수놓인 수건(Полотенце с петухом)」은 삼 뺨는 기계에 두 다리가 잘릴 지경에 이른 소녀의 외과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주요 사건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수술 후 소녀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한 선물인 ‘수탐이 수놓인 수건’이 제목이 되었다. 2편인 「태아 회전술(Крещение поворотом)」은 산부인과 수술이 주된 이야기이고, 3편인 「강철로 된 목(Стальное горло)」은 목에 막혀버린 굳은 물질로 인해 숨을 쉴 수 없는 세 살배기 리드카의 외과수술이 주된 이야기이다. 5편인 「애굽의 흑암(Тьма египетская)」은 제목에서 의학에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상징하고 있다. 6편인 「사라진 눈(Пропавший глаз)」은 왼쪽 눈이 사라진 소년의 이야기이고 7편인 「별 같은 발진(Звездная сыпь)」은 성병에 걸린 환자의

2) 『수기』에 포함된 7편의 단편들은 모두 ‘밤, 어두움, 눈’으로 대표되는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로운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마을, 또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된 독백의 공간, 무리에 병원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의 시공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꿈의 공간이란, 단순히 잠을 자면서 꾸는 꿈으로만 한정지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꿈과 같은 반 무의식의 상태일 수도 있고 주인공의 옛 기억의 시공간, 또는 그의 공상 속 시공간일 수도 있다. 꿈과 현실의 흐릿해진 경계는 현실 세계를 만화경처럼 다양하고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거나, 주인공의 무의식의 세계를 여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수기』에 특징적인 ‘꿈’의 모티브와 일인칭 화자서술에 대하여는 즐고를 참고. 강수경, 『젊은 의사의 수기』: 꿈의 모티브와 웃음의 기능적 의미에 관한 소고, 『슬라브학보』24-1 (2009)

이야기이다. 이처럼 6편의 소설들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수술을 비롯한 의료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을 주된 스토리로 한다.

그러나 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소설 「눈보라」는 다른 6편의 소설들과는 달리 주인공 화자의 의료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물론 작품 속에 두개골 치명상을 입은 환자가 등장하고 주인공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왕진가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긴 하나 그것은 에피소드일 뿐, 실은 눈보라를 뚫고 무리에 병원과 살로메치예보를 오고 가는 여정이 주요 사건이며, 슈제트이다. 「눈보라」는 또한 7편의 소설 가운데 가장 음울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소설들에서 주인공 화자는 매번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지만(「태아 회전술」에서는 심지어 가장 두려워하던 산부인과 수술까지도), 이 작품에서 그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을 가장 뼈저리게 실감한다. 「눈보라」는 유일하게 파블라의 중심에 환자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눈보라」가 『수기』의 다른 작품들 가운데 주제와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독특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연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적절하다. 야블로코프(Е.А.Яблоков)는 「눈보라」와 「수탉이 수놓인 수건」이 맺고 있는 ‘거울’과 같은 상관관계, 「눈보라」와 「태아 회전술」에서 반대방향으로 발전하는 ‘물’과 ‘세레’의 모티프 등을 언급하면서 『수기』내 다른 작품들과 「눈보라」가 맺고 있는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⁴⁾. 「눈보라」의

4) Е.А.Яблоков, *Текст и подтекст в рассказах М. Булгакова ("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 Тверь, 2002. с. 17-21. 야블로코프에 따르면, 「눈보라」에서는 「수탉이 수놓인 수건」과 「태아전위 세레식」에 나타나는 주요 모티프들이 반대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눈보라」에서 ‘경험이 없는 젊디젊은 의사’와 그가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여자’가 맺는 상관관계는 「수탉이 수놓인 수건」에서 ‘젊은 의사’와 그가 기적적으로 ‘부활시킨’ 젊은 여자 환자의 상관관계와 대비되고 있다. 「눈보라」와 「태아전위 세레식」에서는 ‘물’의 모티프가 주요한 상호텍스트적 요소로 등장한다. 「태아전위 세레식」에서 ‘세레’는 비단 태어난 아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다는 회전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젊은 의사에게 적용되는 주제이다(경험 없는 초보 의사가 아닌, 숙련된 외과의사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눈보라」에서도 ‘물’의 모티프는 적지 않게 중요하다. 눈보라로 인해 환자가 들이닥치지 않은 어느 날 오랫동안 바래왔던 ‘목욕’으로 심신을 달래고자 하지만 갑작스런 왕진요청에 몸도 제대로 씻지 못한 채 목욕을 중단해야

상호텍스트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푸슈킨의 『눈보라(Метель)』와 『대위의 딸(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제목 및 에피그라프(То, как зверь, она завоет, То заплачет, как дитя)는 불가코프의 단편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텍스트의 지평을 넓힌다.

불가코프는 단편 「눈보라」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있게 묵상한다. 그의 고뇌는 한정된 텍스트 내에서 제한되지 않고 그의 문학적 스승인 푸슈킨, 고골, 톨스토이 등의 작품과 어울려 확장된 시공간 속에서 진행된다. 이로써 「눈보라」는 단편의 경계를 뛰어넘고 삶에서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간의 인생을 ‘눈보라’의 메타포로 그려낸다. 본 논문은 불가코프의 단편이 ‘눈보라 슈제트’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주제가 액자소설의 구조 속에 허구(꿈)와 사실이 서로 중첩되며 구현되는 독특한 작품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불가코프의 대작들(『거장과 마르가리타』, 『백위군』, 1920-1930년대 중편들, 흥행에 성공한 몇몇 희곡작품들)에 가려져 초기 작품이었던 『수기』는 연구자들의 관심 밖 대상이었다. 게다가 작품의 필사본 및 여러 번의 출판과 관련한 여타 판본들마저 부재하여 연구자들의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가 생전 출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작품 내 7편의 소설들의 순서에 관해서도, 중편 『모르핀(Морфий)』이 연작소설에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도 여전히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나마 2002년 트베리 국립대학교의 강의용 참고서 시리즈물로 출판된 야블로코프의 저작(Текст и подтекст в рассказах М. Булгакова ("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 Тверь, 2002.)만이 거의 유일무이한 연구서로 손꼽힌다. 이처럼 그동안 『수기』는 작품의 재미와 문학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에서조차 『수기』를 연구한 단일 논문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⁵⁾.

한다. 성공적으로 회진술을 성공했던 것과는 달리 「눈보라」에서 주인공의 ‘물 세례’는 수포로 돌아간다.

- 5) 불가코프의 『수기』는 러시아 국문학전공 대학생들의 필독서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20-21세기 러시아문학사과의 필독서 목록 참고: <http://www.philol.msu.ru/~xxcentury/>). 『수기』는 다만 이따금 ‘직업적 소명과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본 논문은 최근 국내에 여러 버전의 번역서로 출판된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작가 불가코프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초기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작품을 읽어나가는 데에 미약하나마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여러 가지 독서법 중 ‘눈보라 슈제트’에 집중하여 작품의 구조(형식)와 주제(내용)를 동시에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1장에서 우리는 불가코프 작품 속 ‘눈보라 슈제트’를 둘러싼 상호텍스트성을 푸슈킨, 고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눈보라 모티프가 러시아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불가코프의 작품 속에서는 어떤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후 II-2장에서는 행위참여자로서의 ‘눈보라’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주제가 독특한 순환구조(더 정확히는, 액자구조 및 샌드위치 구조)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결론부인 III장에서는 허구와 사실이 중첩되면서 결국은 작품 전체가 한편의 ‘꿈’과 같이 구성되고 있는 불가코프 단편의 독창성을 밝히고자 한다.

1. ‘눈보라 슈제트’와 상호텍스트성

불가코프의 단편은 유명한 푸슈킨의 시 「겨울밤」의 시구절로 시작한다.

То, как зверь, она завоет,
То, заплачет, как дитя

총 4연 32행으로 구성된 푸슈킨의 시에서 에피그래프에 인용된 두 행은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의 3,4행에서 반복되는 구절이다. 푸슈킨의 시에 나타

인간적 양심'의 문제를 논의하는 논문이나 수업에서 언급되고 읽혀지고 있다. 다 음을 참고: A. Барков "К вопросу методолог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философских контекстов романа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http://literarytheory.narod.ru/t03.htm>; С.М. Просяникова, Урок литературы в 11-м классе по теме: "Человек - высшая на земле ценность" <http://festival.1september.ru/articles/311908/>

나는 눈보라는 마치 짐승처럼, 마치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끝없이 회오리친다.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동일한 구절이 반복됨으로 인해 이 같은 눈보라의 형상이 강조되고 있다. 푸슈킨의 작품들 속에서 눈보라는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주제를 드러내는 주요한 모티프로 사용되고 때로는 철학적 의미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⁶⁾. 푸슈킨의 눈보라 모티프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거슬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눈보라가 문학작품의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바웬스키로부터이다. 그의 시 「눈보라(Метель)」에서 우리는 눈보라 속에 갇힌 여행자가 악마적 힘의 장난 속에 휘말려 자신을 보호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죽음으로 향해가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바웬스키의 시에서 ‘눈보라 슈제트’는 “빛을 사르는 어둠”, “악령의 휘몰이”(“Снег сверху бьет./ Снег веет снизу./ Нет воздуха, небес, земли./ На землю облака сошли./ На день насунув ночи ризу); “방향 잃음” (“Чутье заглохло и застыло/И в ямщике и в лошадях”); “실체적인 생명의 위협” (“Тут к лошадям косматый враг/Кувыркнется с поклоном в ноги./ И в полночь самую с дороги/Кибитка на бок - и в овраг”)⁷⁾과도 같은 부정적인 의미장을 포함한다.

바웬스키에 의해 발전된 눈보라의 문학적 의미는 이후 주콥스키(В.А. Жуковский)와 야즈이코프(Н.М. Языков), 레르мон토프(М.Ю. Лермонтов)의 ‘겨울’ 시들에서 부분적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바웬스키의 전통을 이으면서 ‘눈보라 슈제트’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작가는 다름 아닌 푸슈킨이다. 그의 ‘겨울’ 시들에서 숲의 정령, 늑대의 형상으로 묘사된 눈보라는 그 스스로 인간을 위협하는 악마적 힘의 소유자인 동시에(“Посмотри: вон, вон играет, / Дует, плюет на меня; / Вот - теперь в овраг толкает / Одичалого коня”) 자신의 악마적 속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중적 존재로 형상화된다

6) 자연물로서의 눈보라의 상징적 의미, 나아가 철학적 의미는 바로 푸슈킨의 작품 속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다음을 참고. К.А. Нагина, " "Метель-страсть" и "метель-судьб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19 столетия" Вестник удмурт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ып. 4. (2010) с. 14

7) П.А. Вяземский, "Метель"

<http://www.rvb.ru/19vek/vyazemsky/01text/01versus/133.htm> 에서 인용.

("Сколько их! Куда их гонят? / Что так жалобно поют? / <...> Мчатся бесы рой за роем / В беспредельной вышине, / Визгом жалобным и воем / Надрывая сердце мне...")⁸⁾. 푸슈킨만의 독특한 눈보라의 형상을 에프슈테인(М. Эпштей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푸슈킨에게 있어서) 자연현상은 압제자이며 동시에 스스로 고통 받는 자로 등장한다. 그 속에는 짐승과 아이의 특징이 함께 섞여 있다. 괴로워하고 푸념한다. 말하자면, 스스로의 무질서함과 어리석음, 무지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 신은 진노하고 벌을 내린다. 인간은 두려워하며 심판을 기다린다. 그러나 자연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사형 집행인이며, 동시에 (함께 고통 받는)희생양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연은 “이중적 의미”의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⁹⁾. 악마적 형상의 눈보라가 지니는 이중성은 불가코프의 단편에서 에피그라프로 사용된 푸슈킨의 시 「겨울밤」에서도 명쾌하게 드러난다.

악마적 형상의 눈보라는 고골 작품에서도 특징적이다. 불가코프 단편에서 고골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러시아 문학의 ‘눈보라 슈제트’를 논하면서 푸슈킨과 함께 고골을 논하지 않을 수도 없다. 더군다나 불가코프가 자신의 문학적 스승으로 간주하던 이가 고골이니¹⁰⁾, 불가코프 텍스트에서 고골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텍스트들에서 도시의 악천후는 푸슈킨의 눈보라와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을 곤경 속에 빠트리며 그들의 운명에 깊숙이 개입하는 작품의 주요한 행위참여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한편 그의 초기 작품인 『성탄절 전야(Ночь перед Рождеством)』에 묘사되는 눈보라의 모습은 푸슈킨의 「악령들(Бесы)」에

8) А.С. Пушкин "Бесы"

9) М. Эпштейн, *Стихи и стихи. Природа в русской поэзии 18-20 веков.* Самара: БАХРАХ-М, (2007) с. 4.

10) 불가코프는 자신의 스승이 고골임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위대한 스승”, “나의 스승”: Письма, М.А. Булгаков, *Собр. соч. в 5-ти т.* Т.5. с. 470, 463). 또한 그에게서 우리는 푸슈킨과 고골의 이름이 종종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가코프야말로 고골, 푸슈킨과 함께 예술세계의 트리아앵글을 이루는 작가라고 평하는 연구자도 있다. И. Лелобровцева, С. Кульяс, "История с вели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Пушкин-Гоголь-Булгаков", *Пушкинские чтения в Тарту 2.* Тарту, (2000) с. 257.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하리만치 흡사하다. (“Мчатся бесы *рой* за *роем* в беспредельной высоте”(「악령들」) - “вихрем пронесся... колдун, клубился в стороне облаком *целый рой духов*..”(「성탄절 전야」)¹¹⁾

1830년이라는 동시대에 창작된 두 작품에서 우리는 악마적 속성을 지닌 눈보라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보라-악마’는 코믹한 상반성을 내포하고 있다. 푸슈킨의 「눈보라」에서 눈보라 때문에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야밤도주에 실패, 결국 교회에 늦게 당도한 주인공의 입장에서 눈보라가 그의 경로를 방해하는 악마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주인공 입장에서 눈보라는 전혀 다르게 기능한다. 『벨킨 이야기』 5편은 이렇게 모두 아이러니와 코믹이 진중하고 비극적인 결말과 뒤엉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작품의 묘미이다. 고골의 눈보라 역시 코믹하면서도 기적과 같은 우연의 특징을 조합한 악마의 형상을 띠는 점이 독특하다. 악마적 속성의 눈보라가 파괴자의 형상으로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눈보라가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귀결된다는 점에서 고골에 특징적인 구비문학적 해학을 엿볼 수 있다¹²⁾.

고골의 눈보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행위참여자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눈보라-인

11) М. Эпштейн, *Слово и молчание: Метафизика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 Высш. шк., (2006) с. 116.

12) 고골의 중편 『성탄절 전야』는 (마녀와 악마의 장난에 의해 별과 달이 자취를 감춘) 어두워진 겨울 밤 일어나는 환상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주인공 춤(Чуб)은 어둠과 눈보라로 인해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솔로하(Солоха)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이미 악마(черт)와 판리(дьак)가 솔로하와 놀다가 자루 속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다. 춤도 솔로하와 놀다가 솔로하의 아들 바쿨라(Вакула)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자루 속으로 들어간다. 바쿨라는 자루들을 버리기 위해 짊어지고 나오지만, 그 중 가장 가벼운 자루는 버리지 않고 남겨둔다. 그 속엔 바로 악마가 자리하고 있다. 바쿨라는 곧장 악마의 꼬리를 잡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가 혼수감으로 요구하던 황제의 신발을 구하기 위해 악마를 시켜 수도 페테르부르그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황제의 신발을 구해 온 뒤 바쿨라는 약혼녀 옥사나(Оксана)와 결혼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악마는 눈보라라는 악천후를 이용해 주인공들을 놀려주려 하지만, 결국엔 주인공들이 겨울 밤을 신나게 즐기고, 바라던 결혼까지 하게끔 도와준 셈이 된다.

생'은 이미 푸슈킨에게서 철학적 의미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악령들」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항하고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Еду, еду в чистом поле;/ Колокольчик дин-дин-дин.../ Страшно, страшно поневоле/ Среди неведомых равнин!/ "Эй, пошел, ямщик!..."). 하지만 눈보라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의 삶을 놀잇감 다루듯 한다(Посмотри: Вон играет,/ Дует, плюет на меня;/ Вон-теперь в овраг толкает/ Одичалого коня;). 여기에서 눈보라는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운명을 연상시킨다. 그의 중편 『눈보라』와 『대위의 딸』에서 주인공은 가고자 했던(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길의 방향을 잃고 헤맨다. 그러나 눈보라 슈제트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곳에 다다르고 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이 판명된다¹³⁾. 여기에서 눈보라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자연의 상징물로 등장한다¹⁴⁾. 이후 눈보라-운명의 형상은 러시아문학에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다.

13)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라지미르와의 비밀결혼식을 계획한다. 하지만 블라지미르는 숲에서 교회로 가는 도중 눈보라를 만나 결혼식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다. 눈보라로 인해 모든 계획이 파국으로 치닫는가 했지만 인간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은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에게 진정한 연인 부르민을 만나게 한다. 마르코비치(Б.М. Маркович)가 “푸슈킨 스타일의 슈제트에 있어서 운명이란 그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원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 우위에 서 있는 지배적인 순서 모두를 대표하는 뜻의 메타포이다”(Б.М. Маркович, ""Повести Белкина" и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текст. К проблеме классика и эллетристика." *Пушкин и Лермонтов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Пб.: Из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7) с. 75.)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운명”이란 말 대신에 악천후의 메타포 “눈보라”를 사용해도 무난함을 볼 수 있다.

14) 여기에서 우리는 게르셴존(М.О. Гершензон)의 말을 인용할 수 있다. “눈보라는 인간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들은 아이들처럼 자신의 계획과 바램 속에 길을 잃는다. 그러면 눈보라는 그들을 들어서, 돌리고, 큰 소리로 귀를 멀게한다. 그리고 단단한 손으로 잡아서서 희뿌연한 어둠 속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들이 마땅히 가야만 했을 바로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눈보라는 그들의 진정한, 그러나 숨어있는 생각들을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М.О. Гершензон, *Мудрость Пушкина*. Томск: Водолей. (1997) с. 103.

눈보라의 메타포가 러시아문학사상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관한 주제는 또 다른 연구 논문을 파생시키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불가코프의 단편에 다시 논의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불가코프의 「눈보라」도 푸슈킨의 「겨울밤」에 나오는 ‘늑대’, ‘악마’와도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눈보라를 연상시킬 법 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단편의 첫줄은 코믹한 주인공화자의 다음과 같은 말로부터 시작한다.

Вся эта история началась с того, что, по словам всезнающей Аксины, конторщик Пальчиков, проживающий в Шалометьеве, влюбился в дочь агронома. Любовь была пламенная, иссушающая беднягино сердце. Он съездил в уездный город Грачевку и заказал себе костюм. Вышел этот костюм ослепительным, и очень возможно, что серые полоски на конторских штанах решили судьбу несчастного человека. Дочка агронома согласилась стать его женой¹⁵⁾.

이 모든 이야기는, 모르는 게 없는 악시나의 말에 의하면, 샬로메치예보에 사는 서기 팔치코프가 농업기사의 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사랑은 불같이 타올라 불쌍한 총각의 심장을 불태웠다. 팔치코프는 그 라체프카 현에 나가 양복을 주문했다. 양복은 눈부시게 멋있었고, 서기의 바지에 수놓인 회색 줄무늬가 불행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기사의 딸은 그의 아내가 되기로 승낙했다.

이후 주인공 화자의 자기소개¹⁶⁾와 지난 이야기들에 대한 긴 삽입부¹⁷⁾를 지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는 단락에서야 비로소 ‘눈보라’가 슬며시 언급된다.

15) М.А.Булгаков, Собр. соч. в 5-ти томах. Т.1. 1989. М. с. 100. 이후 불가코프의 단편은 본 전집의 제 1권에서 인용하기로 하며, 본문 인용 시 괄호 안에 쪽수를 기입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16) “Я же-врач N-ской больницы, участка, такой-то губернии, <...>” (100) 나로 말할 것 같으면 ~ 현에 속한 N 병원의 의사로서, <...>

17) 소녀의 다리 절단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후 그의 명성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매일 백 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된다. 그 바람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료와 수술 및 입원환자 회진을 병행하는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Утро заглянуло в окошко спальни как-то особенно бело. (101)

아침은 침실 창문으로 웬지 아주 희뿌연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에피그래프에서 암시했던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눈보라는 찾기 힘들다. 산과 펠라게야 이바노브나는 주인공-의사에게 겨우 두 명의 환자만이 병원을 찾았고, 그들도 부식된 이를 뽑으러 온 것에 불과함으로 데미얀 루키치가 뽑아 줄 것이다, 병동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린다. 농담하느냐며 믿지 못하는 의사에게 펠라게야 이바노브나는 사실이다, 눈보라 때문이다, 라고 답한다.

- Вы - что? Шутите?

- Честное слово. *Вьюга*, доктор, *вьюга*, <...> (강조-필자; 101).

- 무슨 말입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 정말입니다. 눈보라가 친다니까요, 선생님, 눈보라 말입니다.

이처럼 젊은 의사는 마을을 집어 삼킬 듯한 눈보라 덕분에 ‘운수 좋은 날’을 맞는다. 전날 111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이 날 밤 꿈에선 900명의 환자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주인공은 오래간만에 하릴없이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다 (Побывав на обходе, я целый день ходил по своим апартаментам <...> , свистел из опер, курил, барабанил в окна...).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악마가 가루치약으로 장난치는 듯 눈보라가 위아래로, 옆으로, 둥글게 휘몰아치는 창밖 풍경은 이 날이 그저 ‘운수 좋은 날’이 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А за окнами творилось что-то, мною еще никогда не виданное.

Неба не было, земли тоже. Вертело и крутило белым и косо и криво, вдоль и поперек, словно черт зубным порошком баловался.

(1, 102)

창밖으로는 무언가, 여태껏 내가 보지 못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역시 보이지 않았다. 흰 것이 떠다니고 돌아다녔다. 옆으로, 비스듬히, 위아래로,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이 마치 악마가 가루치약으로 장난치는 듯 했다.

결국 이야기는 두개골 치명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눈보라를 헤치고 왕진을 가야하는 것으로 급변한다. 이때 의사를 모시러 온 소방관의 외모를 우리는 그냥 지나쳐 볼 수 없다. 고대 로마인을 연상시키는 헬멧을 쓰고 온 그는 ‘늑대’가족으로 된 외투를 휘감고 있다. 다시한번 눈보라의 악마적 속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주인공 의사는 외출을 준비하면서 염소가죽으로 된 외투를 걸친다. 이후 왕진에서 돌아오는 길 주인공은 숲에서 진짜 늑대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보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눈보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했더니, 결국은 눈보라의 ‘악마’적 속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눈보라로 인해 ‘운수 좋은 날’을 맞이하지만 이 날은 ‘운수 나쁜 날’이 되고 만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눈보라가 악천후의 성격을 뛰어넘어 주된 행위 참여자로서 소설 구조 속에 등장하여 다른 주인공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불가코프는 러시아문학에 전통적인 ‘눈보라 슈제트’를 환기시키면서 절대적인 눈보라의 존재와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존재를 대비시켜 인간의 운명에 직접 개입하고 그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형태의 힘을 가진 눈보라를 형상화한다. 눈보라는 소설 내에서 주인공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일에 지친 그에게 오래간만에 쉼을 허락하면서 삶의 희망을 부여하지만, 결국 운명처럼 그의 존재를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고 만다. 이 같은 눈보라의 형상은 비단 주인공 화자의 인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셰르메치예보 인물들의 운명까지 조작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눈보라의 역할은 소설 구조 자체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눈보라 슈제트’와 관련한 작품의 주제는 구조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자.

2. 삶-죽음의 순환구조

「눈보라」의 구조는 작품을 서사단위로 나누어 볼 때 분석이 용이해진다. 아래에 시도된 구조분석은 단편이 크게 두 개의 이야기(A와C)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서두에 본격적인 이야기(C)가 시작되기 전 삽입된 전사(前事, B)는 주인공의 소개와 지난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이는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과는 상관없는 독립된 이야기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아래의 서사 단위의 분석을 살펴보자.

A-1	이야기의 도입부. 사고 발단의 원인 소개(1단락)
B	삽입부로서 주인공 소개 및 전사요약 (4단락)
A-2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눈보라로 인해 환자들이 오지 않은 한가로운 날 목욕을 하기로 하지만 갑작스런 편지로 인해 목욕을 중단하고 왕진 갈 채비를 함. (7단락)
C-1	병원에서 샬로메치예보로 이동 (2단락)
C-2	샬로메치예보에 도착하지만 이미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살리지 못함 (8단락)
C-3	샬로메치예보에서 병원으로 이동 (7단락)
A-3	병원에 도착 (2단락)

표-1. 이야기의 서사단위 구조 분석

표-1을 보면 단편 「눈보라」가 액자소설임이 분명해 진다. 과불리는 이야기 (A) 안에 이야기(C)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 단락으로 나눈 서사단위를 보면 틀(рамка)의 내부이야기로 규정할 수 있는 샬로메치예보 이야기(C)가 총 17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10단락으로 구성된 바깥 이야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또한 샬로메치예보 이야기는 주인공의 공간이동에 따라 다시 세 부분(C-1, C-2, C-3)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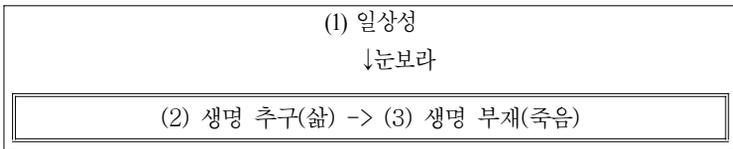
18) 굳이 줄 수로 따져 보자면, A: 157줄, B: 52줄, C: 285줄로, 역시 틀 내부의 이야기에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의 이동은 시간순서대로 이야기를 정렬해 보면 바깥이야기와 연결되어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한 이야기는 공간 이동이 야기하는 의미가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A-1, B, A-2	(매일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일상적인 현실
C-1	↓샬로메치예보로 이동
C-2	(허망한) 생명(삶)의 추구 - 생명의 부재 (절망)
C-3	↓병원으로 이동
A-3	현실로 복귀

표-2: 공간이동에 따른 이야기 구조

표-2는 단편 「눈보라」의 구조가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액자소설¹⁹⁾은 주제적 측면에서 영원한 존재와 한시적인 존재, 절대적인 양상과 유한적인 양상, 삶과 죽음, 선과 악 등의 극명한 대비라고 하는 이분법적 분석의 틀에 쉽게 포착되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표-2에서 우리는 ‘일상’이라는 바깥 이야기 안에 ‘삶과 죽음’의 주제를 포함하는 샬로메치예보 이야기가 들어 있고, 더 넓게는 ‘일상의 삶’의 이야기 안에 ‘죽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표-2를 액자구조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액자소설의 기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액자소설의 기법은 일반적으로 스토리 속의 스토리 혹은 일정한 주제와 구성의 틀의 범위와 원칙을 지키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구성을 지칭한다. 이는 연작소설의 특성파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작 소설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주제적 측면과 구성적 양상의 테두리가 명확한 것을 지칭한다. 액자소설의 구성이 서두와 결말 부분을 중심으로 틀을 이룬다면 이는 제한된 의미의 액자소설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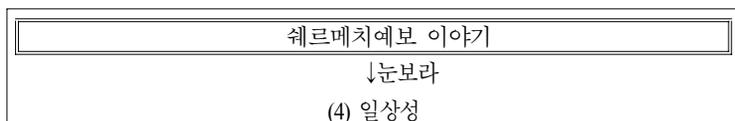


표-3: 액자구조로 본 「눈보라」의 구조

웨르메치예보 이야기는 그 구조상 작은 틀로 규정된다. 그리고 액자소설의 큰틀과 작은틀을 구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눈보라이다.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가코프 단편에서 눈보라는 악마적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작품 내에서 단순히 인간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시적인 악천후의 기능을 넘어서서 행위 참여자로 등장한다. 이를테면 눈보라는 소설 속 사건이 진행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길을 막아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주인공에게 오랜만에 목욕할 여유를 주는 것도, 웨르메치예보를 다녀오는 길 주인공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하는 것도 모두 눈보라의 역할이다.

한편 우리는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눈보라의 형상이 에피그래프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악마-늑대’의 형상으로 뚜렷해짐을 보게 된다. 이것은 눈보라로 둘러싸인 액자 내부의 공간에서는 행위참여자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요원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눈보라로 둘러싸인 공간인 웨르메치예보에서 신부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웨르메치예보 이야기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흰색’의 모티프(привели к белой кровати, фигура женщины в белом, лицо бумажного цвета, белая фигура, женщина в белом)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신부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색이다. 하지만 웨르메치예보의 공간 내부에서 흰색은 눈보라의 흰색을 연상시키면서(Утро заглянуло в окошко спальни как-то особенно бело) ‘죽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죽음은 마치 의인화된 대상처럼 등장한다.

У меня похолодело привычно под ложечкой, как всегда, когда я в упор видел смерть. Я ее ненавижу. (106)

죽음을 응시할 때면 항상 그렇듯이 나는 습관적으로 아래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죽음을 증오한다.

이렇게 ‘죽음’은 단편 「눈보라」에서 주제적 측면의 주요한 한 축을 구성한다. 우리는 작품 서두 삽입부(B)에서 주인공 화자의 일상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험겨운 현실임을 본다.

<...> - как его спасти? И этого - спасти. И этого! Всех!

Шел бой. Каждый день он начинался утром при бледном свете снега, а кончался при желтом мигании пылкой лампы-молнии. (101)

<...> - 어떻게 그를 구한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구한다지. 그리고 이 사람은! 모두를!

전투였다. 전투는 매일 희뿌연 눈빛이 비취는 아침에 시작하여 활활 타 오르는 전등이 노란 빛으로 빛나는 즈음에 끝이 났다.

죽음의 주제는 샬로메치예보에서 무리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이어진다. 눈보라로 인해 길을 잃고 말들이 스스로 걸음을 멈추자, 주인공은 레프 톨스토이에게 왠지 모를 증오를 느낀다.

Я вдруг вспомнил кой-какие рассказы и почему-то почувствовал злобу на Льва Толстого.

"Ему хорошо было в Ясной Поляне,-думал я,- его небось не возили к умирающим.." (108)

나는 갑자기 어떤 단편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레프 톨스토이에게 왠지 모를 증오를 느꼈다. “그는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좋았겠지, - 나는 생각했다, - 죽어가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진 않았을테니...”

여기서 주인공이 기억해냈다는 단편은 톨스토이의 단편 「눈보라(Метел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가코프의 단편은 톨스토이의 단편과 상호텍스트를 이루면서 ‘죽음’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지평을 넓힌다. 톨스토이의 단편 「눈보라」는 역시 어느 겨울밤 썰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가는 내용의 작품이다. 그의 단편은 불가코프의 단편과 여러 면에서 유사함을 지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죽음’의 주제를 살

펴보려한다. 톨스토이의 단편에서 죽음은 주인공 화자의 현실과 꿈속에서 형상화된다. 귀족출신의 주인공은 눈보라치는 밤, 길을 잃고 우왕좌왕 한다. 이때 그는 여러 번에 걸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젊은 시절 야망으로 불타던 자신의 모습을 본다. 우쭐대고 싶고 남 앞에 나서서 자랑하고 싶어 하던 젊은 시절의 어느 날, 그는 물에 빠진 농부를 목격하게 된다. 모두들 그를 구하기 위해 애쓰지만 두려움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고, 그 중 유일하게 수영할 줄 알았던 주인공 역시 나서지 못한다. 주인공이 느꼈던 현실과 이상의 괴리, 눈앞에서 벌어지던 사투의 장면은 눈보라 치는 겨울밤 그의 꿈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불가코프 단편에서 죽음은 더 심화된 의미로 형상화된다. 주인공은 날마다 죽음과 싸우는 나날들을 보낸다. 웨르메치예보에서도 그는 불운한 신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다. 죽음을 증오하는 그로서는 더 이상 웨르메치예보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힘없는 존재이며, 무익한 존재이다.

Каюсь, я не добавил, что одна мысль остаться во флигеле, где беда, где я бессилен и бесполезен, казалась мне невыносимой.
(107)

고백하자면, 불행이 가득한 곳, 내가 무능하고 무익한 그곳에 남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내겐 참을 수 없었음을 덧붙이지 않았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죽음은 늑대로 형상화되어 주인공의 생명을 위협한다. 무형의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주인공은 이제 유형의 ‘죽음’과 사투를 벌인다.

Странный звук, тоскливый и злобный, возник где-то во мгле, но быстро потух. Почему-то неприятно мне стало и вспомнился конторщик и как он тонко скулил, положив голову на руки. По правой руке я вдруг различил темную точку, она выросла в черную кошку, потом еще подросла и приблизилась. (강조-필자, 109)

이상한 소리, 음울하고 악의에 가득 찬 소리가 어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가는 금세 사라졌다. 웬일인지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팔에 머리를 파묻고 조용히 흐느끼던 우체부가 생각났다. 오른팔 쪽에서 나는 문득 어두운 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만큼 커지더니 더 커져서 가까이 다가왔다.

불가코프는 싸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검은 고양이”, “네발 달린 짐승(четвероногую тварь)”, “무언가 끔찍하고 뻔뻔한(что-то грозное и наглое)” 등으로 명명하다가 A-3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늑대들(волки)”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에서 단편은 ‘눈보라-늑대’로 공통되는 에피그라프를 연상시키면서 ‘눈보라-운명’, ‘눈보라-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То, как зверь, она завоет,
то заплачет, как дитя

정리해보자면, 눈보라는 소설 속 사건이 진행되는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웨르메치예보 이야기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에 액자와 같은 틀의 형태로 등장하여 그 속의 주인공들의 운명이 눈보라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액자의 틀로 등장한 눈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에 대한 파괴자요 가해자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불가코프 단편의 구조분석을 통해 눈보라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그의 역할이 액자의 틀을 통해 작품 속에 구조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보라는 행위참여자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개별적인 주인공의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작품 전체의 구조와 공간성을 이루고 있고,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등장하여 그 내부의 인간들의 생명에의 열망을 절망적인 순환구조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구조는 다음의 표로 도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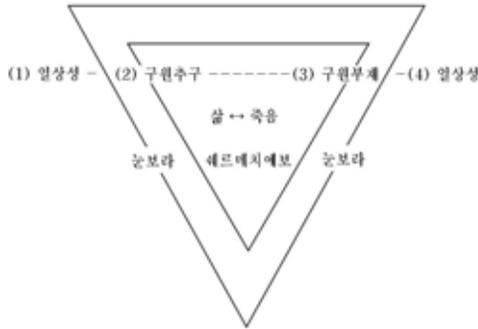


표-4: 삶-죽음의 순환구조

여기에서 보듯이 단편 「눈보라」는 그 주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행위 참여자들이 나름대로 구원(생명 추구)의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 과정은 결국 죽음(생명 부재) 혹은 일상으로의 회귀로 결말 지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 가운데 눈보라는 당당히 한몫을 차지하는 주인공으로, 인간의 운명을 조종하는 악마로, 그리고 사건의 진행 자체를 소설의 구조상으로 반증하는 ‘액자들’로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운명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설의 구조가 원점 회귀(곧, 일상으로의 회복)라는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III. 나가며: 허구와 사실의 모자이크 (또는 꿈속의 꿈)

소설의 이야기는 “불운한 신부의 죽음”으로 요약될 정도로 간명하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를 바탕으로 형상화된 텍스트는 이야기의 단 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는 액자구조인데다 중간에 삽입된 전사로 인해 샌드위치 구조로 볼 수도 있다. 텍스트를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것은 썰매를 타고 “12 베르스타”를 오고 가는 그의 여정이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행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본격적인 이야기(수요일의 사건으로 추정되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일상을 고백하며 여러 번 꿈속에서 본 장면들을 소개한다.

Ночью я видел в зыбком тумане неудачные операции, обнаженные ребра, а руки свои в человеческой крови и просыпался, липкий и прохладный, несмотря на жаркую печку-голландку. (100-101)

밤에 흔들거리는 안개 속 나는 수술이 실패한 것을 보았다. 갈비뼈들은 열어젖혀진 채이고 내 손은 피범벅이었다. 무더운 네덜란드식 페치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끈적끈적하고 서늘한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Заснул я, стараясь угадать, сколько будет завтра - в среду? Мне приснилось, что приехало девятьсот человек. (101)

내일, 수요일엔 몇 몇이나 올 것인가를 추측해보며 나는 잠이 들었다. 나는 900명의 환자가 오는 꿈을 꾸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것 역시 무언가 몽롱함 가운데 전개되고 있음을 본다.

Утро взглянуло в окошко спальни как-то особенно бело. Я открыл глаза, не понимая, что меня разбудило. Потом сообразил - стук. (101)

아침은 침실 창문으로 웬지 아주 희뿌옇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눈을 떴다. 무엇이 나를 깨웠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주인공의 여느 일상과 비교해 볼 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치 '꿈만 같이' 여유롭게 주어진다. 웨르메치예보 이야기는 더욱 꿈과 같이 전개된다. 작은틀 내부의 이야기가 '꿈'일 수 있다는 우리의 논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무나 순식간에 웨르메치예보에 도착한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잠이 들어 모스크바의 목욕탕을 보는 듯 하더니 이내 니콜라이시대를 연상시키는 흰 원주기둥의 건물로 들어선다.

- Гу.. гу...-загрелась в перелеске вьюга, потом свистнула сбоку, сыпнула... Меня начало качать, качало, качало... пока я не оказался в Сандуновских банях в Москве. И прямо в шубе, в раздевальне, и испарина покрыла меня. Затем загорелся факел, напустили холоду, я открыл глаза, увидел, что сияет кровавый шлем, подумал, что пожар... затем очнулся и понял, что меня привезли. Я у порога белого здания с колоннами, видимо, времен Николая I. Глубокая тьма кругом, <...> (104)

- 우...우...-눈보라가 골짜기에서 윙윙대더니 옆으로 후려치고는 뿌려댔다... 썰매가 나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모스크바의 산두노프 목욕탕에 도착할 때까지 썰매는 나를 흔들어댔다... 외투를 입은 채 탈의실에서 나는 땀에 흠뻑 적었다. 얼마 안 있어 햇불이 타올랐고 추위가 밀어닥쳤다. 나는 눈을 떠 선홍색 헬멧이 빛나는 것을 보고는 불이 난 줄 알았다... 잠에서 깨어서야 나를 목적지로 데려온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니콜라이 1세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둥이 있는 흰 건물의 입구에서 있었다. 깊은 어둠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

두 번째는 웨르메치예보에서 주인공과 꼭 닮은 ‘젊은 의사’를 보게 되는 점이다. 주인공이 고백하였듯이 그들은 마치 동년배의 같은 얼굴을 그린 두 개의 초상화만큼이나 닮아 있었다. 이것은 웨르메치예보의 공간이 마치 꿈의 공간이고, 그 곳의 ‘젊은 의사’가 다른 아닌 주인공 화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우리의 논지를 재차 확인해 주는 점이다.

Шубу кто-то с меня снял, повели по праздничным половичкам и привели к белой кровати. Навстречу мне поднялся со стула молоденький врач. <...> На миг в них мелькнуло удивление, что я так же молод, как и он сам. Вообще мы были похожи на два портрета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лица, да и одного года. <...> (105)

누군가가 내 외투를 벗겼다. 그리고 혼례용 카펫을 따라 나를 흰 침대로 데리고 갔다. 나를 맞으려고 젊은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 나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젊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나타났다.
우리는 동갑대기의 똑 같은 얼굴을 그린 두 개의 초상화를 닮았던 것이다.
<...>

세 번째는 주인공이 웨르메치예보를 떠나 올 때 모든 것들이 ‘마치 꿈처럼’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린 점이다.

Однако через минуту меня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другое. С трудом
обернувшись, я увидел, что не только факела нет, но Шалометьево
пропало со всеми строениями, как во сне. (107)

그러나 잠시 후, 내 흥미를 끈 것은 다른 것이었다. 힘겹게 돌아선 나는
햇불만이 아니라 샬로메치예보의 모든 건물이 마치 꿈처럼 사라진 것을
보았다.

웨르메치예보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꿈과도 같았다면 틀의 바깥 이야기
역시 마치 한편의 꿈처럼 끝난다.

-Озолотите меня,-задремывая, пробурчал я,-но больше я не по...

-Поедешь... ан поедешь...-насмшливо засвистала вьюга. Она с
громом проехала по крыше, потом пропела в трубе, вылетела
из нее, прошуршала за окном, пропала.

-Поедете... по-е-де-те...-стучали часы, но глуше, глуше...

И ничего. Тишина. Сон. (111)

-수고비를 왕창 주신다 해도, - 나는 줄면서 중얼거렸다. - 그러나 다시
는 가지...

-갈거야... 그럼, 갈거라고... - 눈보라가 조소하는 듯 웅웅거렸다. 눈보라
는 지붕위에서 굉음을 내더니 잠시 후 굴뚝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는, 거기
에서 나와 창문너머에서 쉬쉬거리며 사라졌다.

-가실겁니다... 또-가-실-겁니다...- 시계가 똑딱거렸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정적. 잠.

이처럼 불가코프 단편에서 틀 바깥 이야기와 내부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작품 내 시간의 흐름이 하룻밤이 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틀의 내·외부 이야기는 모두 지난밤의 ‘꿈’으로 융합되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화요일 밤, “내일은 몇 명이나 올까” 하고 잠이 든 주인공의 잠이 계속 이어지면서, “쉐르메치예보 이야기”는 주인공의 꿈 속 공간에서 전개되는 사건으로 추정되어진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이야기는 마치 수요일 아침부터 밤사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처럼 전개되고 있어 작품은 허구와 사실이 중첩되는 독특한 모양새로 구성된다. 이처럼,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대로, ‘삶과 죽음’, ‘직업적 소명과 인간적 양심’, ‘거대한 자연과 나약한 인간’과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불가코프의 「눈보라」에서는 허구와 사실이 중첩되는 구조 속에 마치 한편의 꿈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가코프 단편의 독창성이며 그의 단편을 읽는 즐거움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수경. “『젊은 의사의 수기』: 꿈의 모티브와 웃음의 기능적 의미에 관한 소고”. 『슬라브학보』. 24-1. 2009.
- БАРКОВ А. "К вопросу методолог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философских контекстов романа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http://literarytheory.narod.ru/t03.htm>
- БЕЛОБРОВЦЕВА И., КУЛЬЮС С., "История с вели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Пушкин-Гоголь-Булгаков", *Пушкинские чтения в Тарту 2*. Тарту, 2000.
- БУЛГАКОВ М.А. *Собр. соч. в 5-ти т.* Т.1. М. 1989.
- ВЯЗЕМСКИЙ П.А. "Метель"
<http://www.rvb.ru/19vek/vyazemsky/01text/01versus/133.htm>.
- ГЕРШЕНЗОН М.О. *Мудрость Пушкина*. Томск: Водолей. (1997).
- МАРКОВИЧ Б.М. " "Повести Белкина" и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текст. К проблеме классика и эллетристика". *Пушкин и Лермонтов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 литературы*. СПб.: Из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7).
- ПРОСЯНИКОВА С.М. Урок литературы в 11-м классе по теме: "Человек - высшая на земле ценность"
<http://festival.1september.ru/articles/311908/>
- Письма, М.А. Булгаков, *Собр. соч. в 5-ти т. Т.5.* (1990).
- СОКОЛОВ Б.В. "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 *Энциклопедия булгаковская*. М. (1998).
- ЭПШТЕЙН М. *Слово и молчание: Метафизика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 Высш. шк. (2006)
- _____. *Стихи и смехи. Природа в русской поэзии 18-20 веков*. Самара: БАХРАХ-М. (2007).
- ЯБЛОКОВ Е.М. *Текст и подтекст в рассказах М. Булгакова ("Записки юного врача")*. Тверь. (2002)
- <http://www.philol.msu.ru/~xxcentury/>

❖ ABSTRACT

The Cyclical Structure of "Life and Death" in "Snowstorm-Plot" Reflected in "Snowstorm" of M.A. Bulgakov

Kang Su Kyung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ntroduce a little-known work of M.A. Bulgakov "Snowstorm" and provide some various clues for reading this short story. This study is focused on "snowstorm-plot", grasping the structure and the theme of the present work.

To this end, in the Chapter II we tried to seek for the meanings of Bulgakov's "snowstorm" based on intertextuality shown from the works by those writers such as Pushkin, Gogol and Tolstoy. In this short story "snowstorm" is presented not only as a natural phenomenon but as a "participant" which provides young doctor-narrator with short time break and let him go to a dying bride, and at last place him on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Indeed "snowstorm" plays a role of the framed structure of Bulgakov's text.

In the Chapter III we observed the creative expression of Bulgakov's work which is comprised of overlappings with dream and reality. In other words, in the short story "Snowstorm" the outside and the inside story of frame are described as a dream of the one same night. We can guess that the Shermetievo story is a kind of dream of young doctor who fell asleep in Tuesday night, asking himself "how many patients will come tomorrow?". By the way the Shermetievo story unfolds as an incident which is happened on Wednesday. In this way in Bulgakov's "Snowstorm" it is hard to draw clear lines of demarcation between dream and reality. Therefore existential themes like these "Life and Death", "Professional calling and personal conscience", "The great nature and the weak human being" are resonated with original structure "Dream in Dream".

Key Words

눈보라, 삶과 죽음, 액자구조, 순환구조, 불가코프

Snowstorm, Life and Death, Frame Structure, Cyclical Structure, M.A. Bulgakov

논문접수일: 2011. 04. 25.

심사완료일: 2011. 05. 28.

게재확정일: 2011. 06. 10.